

담임목사 윤명호 Rev. David M. Yoon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교회. 201-229-1561 Fax. 201-2291562



E: info@dongsanchurch.org W: www.dongsanchurch.org Youtube: https://youtube.com/c/njdac

# Promise Land

## 약속의 땅 이야기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은혜로운  
성전건축 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경배찬양 다같이  
성경봉독 잠언 17:13-14  
말씀선포 "선으로 값으라"  
윤명호 목사  
찬양 458장  
축도 윤명호 목사

### 새벽 기도회

#### 매일성경QT

시편 10 ~ 16편  
월-토 새벽 5시 30분  
(on-line)

### 금요일기도회 오후8:30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 2020년 5월 10일 어머니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Online  
EM(ANM) 오후 1:30 Online

- \*예배에의 부름 다함께
- \*사도신경 다같이
- \*확신찬양 27장
- 중보기도 장영식 장로
- 특별순서 최영진 집사
- 성도의 교제 다같이
- 교회소식 인도자
- 특별영상 교육부
- 성경봉독 마태복음 15:22-28
- 말씀선포 "어머니 상"  
윤명호 목사
- 헌신찬양 304장
- \*축도 윤명호 목사

모든 예배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드러집니다

\* 표는 모두 일어서서

#### 담임 목회자 방송 선교

AM 1660 7:00 am(토) 설교  
1:50 pm(토) 에세이  
6:25 am(주일), 2:25 pm(주일)



# 교회소식

2020포어  
내가 매일 기쁘게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1. **2020년 인구조사, 한국어-** <https://2020census.gov/ko.html>
2. **교회 방문 기도 시간, Open hours:** 7am-6pm (월-금) 7am-2pm (토, 주일)
3. **'매일성경' 큐티북 (5-6월),** 교회 강대상 앞에 놓아 두었습니다. (책 1권값 \$5)
4. **전교인 온라인 토요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토요일 5:30am
5. **어머니 주일 예배 일시:** 오늘 오전 10시
6. **위원장/기관장 회의,** 일시: 오는 수요일(13일) 저녁예배후 9pm  
장소:online
7. **"코로나 특별 섬김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아시면 꼭 섬김팀으로 연락 요망. 코로나 특별섬김팀: 장영식장로님(팀장) 201-741-4488, 홍인기집사님, 201-290-3968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도록,
2.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 (셀/교구 가족들).
3. 5월의 선교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김덕래/초미성 선교사님과 아마존 선교를 하시는 양성식/김혜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4. 123대가 함께하는 선교전진기지로 성전 건축 헌당이 2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5. 남북한이 복음안에서 통일되도록

## 주일예배 기도순서

5월 10일	5월 17일	5월 24일	5월 31일
장영식 장로	주영진 장로	김형모 장로	정다니엘 장로

## 2020년 2/4분기 행사일정

- \* 어머니주일, 5.10일
- \* 메모리얼데이, 5.25일
- \* 삼위일체주일, 6.7일
- \* 동산 봄철 운동회, 6.14일
- \* 아버지 주일, 6.21일
- \* 상반기 비전제직회, 6.21일
- \*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6.29일

## 주요모임안내

- \* ANM(EM) 예배,  
주일 1:30pm 장소: online
- \* ANM(EM) 주중모임  
목요일 5:30pm 장소: online
- \* 중고등부 금요모임,  
금요일 8시 온라인 미팅
- \* 각 위원장 기관장 회의,  
오는 수요일(13일) 저녁예배 후  
9pm online



담임목사 윤명호

## “가장 받고 싶은 상”

(A prize most wanted, by 이슬)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상

하루에 세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해도/ 되는 그런상/  
그 때는 왜 몰랐을까?/ 그 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 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내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 이제 다시 못 받을 /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 울 얼마 얼굴 (상)

— — —

# 위

의 시는 지난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주최한 글쓰기 공모전에서 동시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당시 초등학교 6학년 이슬양의 작품입니다. 이슬양은 바로 한 해전에, 암으로 세

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남자분들이 본의 아니게 가사일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일을 나가는 가정에선, 아빠가 한동안 가사일을 전담하게도 됩니다. 아빠는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 머무는 아이들을 위해, 하루 세 끼,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차리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님을 곧 알게 됩니다.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점심 먹고 돌아서면 저녁, 그 와중에, 아이들 학업도 봐주어야 하고, 세탁도 해야하고,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일이 도무지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아내 저녁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을 아무런 불평이나 짜증없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고 때로 배우자의 짜증까지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어머니가 우리를 모두 그렇게 키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날,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